

민주 '비례제' 전당원 투표로 결정

병렬형 회귀·준연동형 유지 놓고 투표...실무 준비 착수 "정당 민주주의에 부합" vs "지도부 결정부터" 의견 분분

더불어민주당이 '4·10 총선 선거제 당론' 결정을 위해 전당원 투표를 하는 방안을 추진하고 있어 당내 논란이 커지고 있다.

현행 준연동형 비례대표제 유지와 병렬형 회귀를 놓고 의견이 팽팽하게 갈린 상황에서 당원 투표를 통해 당론을 모으겠다는 것으로, 친명(친이재명)계 내에서도 의견이 나뉘고 있다.

찬성 측은 당의 주인인 당원의 의견을 묻는 것은 정당 민주주의에 부합한다는 주장을 펴고 있지만, 반대 측은 지도부가 먼저 입장을 정한 다음 당원의 뜻을 묻는 것이 올바른 절차라는 입장이다.

이 대표 최측근으로 꼽히는 정성호 의원은 1일

YTN 라디오에서 "지도부가 입장이 있다면 의원 총회를 거쳐 의견을 모아서 국민들과 당원들을 설득하는 게 올바른 태도 아닌가"라며 "그냥 당원들에게 어떤 게 좋냐고 묻는 것이 과연 올바른지는 저는 조금 의문이 들기는 하다"고 말했다.

한 친명계 의원은 통화에서 "이 대표가 먼저 결정하고 전당원 투표를 하면 좋았을 것"이라며 "이 나연 대표 시절 서울·부산시장 보궐선거 이후보 결정을 당원 투표에 부쳤었는데 똑같은 상황을 재현하는 것"이라고 지적했다.

당 원로인 유인태 전 국회 사무총장은 CBS 라디오에 출연해 "전반 받을 것은 전부 당원 투표를

해서 하더라. 히틀러가 국민만 보고 간다고 그랬다"며 "이거(연동형 선거제 약속) 뒤집으면 공으로 메주를 쓴다고 그래도 이 대표를 누가 믿겠느냐"라고 질타했다.

그러나 '선거제 전당원 투표'를 처음 제안한 정청래 최고위원은 페이스북에 "국민투표하면 국민에게 책임 떠넘기는 건가. 국민에게, 당원에게 묻는 것이 주권재민 민주주의 헌법정신 아닌가. 중요한 정책을 당원에게 묻는 것이 나쁜가. 참 이상한 논리"라고 반박했다.

친명계 5선인 안민석 의원은 SNS에 "정당의 주인은 국회의원이 아니라 당원"이라며 "국회의원들이 갑방질판해온 선거제를 당의 주인인 당원들의 의견을 묻고 그 의견에 따르는 것은 민주주의 정신에도 부합한다"고 지지의 뜻을 밝혔다.

/오광록 기자 kroh@kwangju.co.kr·연합뉴스

野, 새 양곡법 개정안 단독 의결

윤석열 대통령의 재외요구권(거부권) 행사 후 더불어민주당이 다시 발의한 양곡관리법 개정안이 1일 야당 단독으로 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전체회의를 통과했다. 개정안은 미국의 가격 기준 가격에서 폭락하거나 폭등하는 경우 정부가 미국의 초과 생산량을 매입하거나 정부관리 양곡을 판매하는 등 대책을 의무적으로 수립·시행하도록 한다는 내용이 핵심이다.

"쌀 수요 대비 초과 생산량이 3~5%이거나 쌀 값이 전년 대비 5~8% 하락할 때 정부가 초과 생산량을 전량 매입한다"는 것을 골자로 한 이전 양곡법 개정안 내용보다는 정부 의무 매입 부분을 완화했다는 게 민주당 입장이다.

하지만, 국민의힘은 이 역시 사실상 정부의 시장개입 조항을 담고 있고, 국회 일사부재의 원칙에도 어긋난다며 반대해왔다.

여야 간 의견이 좁아지지 않자 농해수위 위원 6

명이 포함된 안전조정위원회가 꾸려졌지만, 여당 측은 민주당 출신 무소속 윤미향 의원이 비교섭단체 몫으로 포함된 것에 문제를 제기하면서 두 차례 열린 회의에 참석하지 않았다.

농해수위 여당 간사인 이달곤 의원은 이날 전체 회의에서 "상대가 없는 상태로 한 안전조정은 원천 무효"라며 "이번 개정안은 이전에 거부권이 행사된 개정안과 원천적으로 수단이 비슷하기에 유사동질법"이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정회용 의원은 "개정안에 담긴 정부 미국 매입을 결정하는 위원회는 농림축산식품부 차관이 위원장이지만 위원은 생산자 대표 단체, 전문가 등 15명 이내다. 이해관계자가 포함된 위원회가 결정하는 게 어려울 수 있다"고 지적했다.

여당 의원들은 안전조정위원장을 맡은 민주당 윤준병 의원의 조정 내용 설명 도중 퇴장했다.

/오광록 기자 kroh@kwangju.co.kr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가 1일 신도림역에서 도심철도 지하화 공약을 발표하고 있다. /연합뉴스

국민의힘 광주시당 선대위 본격 활동

개혁신당과 보수대결 주목

국민의힘 광주시당이 선거대책위원회를 구성하고 제22대 총선을 위한 만반의 준비에 나섰다.

하지만 일부 당직자와 당원들이 탈당을 선언하고 개혁신당에 입당하면서 이번 총선에서 지역 내 보수진영 대결도 주목된다.

국민의힘 광주시당은 1일 시장 회의실에서 주요 당직자 회의를 하고 운영위를 중심으로 한 선대위를 구성했다. 시당은 3일 제22대 국회의원선거 지역 후보자 공천 접수가 마무리되면 시장 선대위를 설 연휴 이후 2월 중순께 출범시킬 예정이다.

시당은 인제 영입과 광주시당, 8개 지역구 맞춤형 공약 등 총선 모든 분야 준비에 박차를 가할 것으로 보인다.

주기한 시장 위원장은 "선대위에서 총선 전략을 세우고 시민들의 요구에 맞는 공약을 발표하겠다"며 "광주발전을 위한 정책 개발과 인재 영입에 중

점을 두고 광주시민의 실리를 추구하는 정치 지형을 만들겠다"고 말했다.

국민의힘 광주시당은 지난 대통령선거에서 광주·전남 보수 후보 역대 최고 득표율을 끌어올리는 등 '서진(西進) 정책'에 성공했다는 평가를 받았다.

이런 가운데 최현수 전 국민의힘 광주시당 서구를 사무국장과 박진우 전 지방선거 출마자 특별위원장 등 52명은 이날 광주시의회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국민의힘 탈당과 개혁신당 입당을 선언했다.

2022년 지방선거에서 각각 광주시 서구·동구의 원에 도전했던 최 전 사무국장과 박 전 위원장은 "정치는 누구나 참여할 수 있는 공간이어야 하며 이날에 서로잡지 않고 여러 정당 사람들이 토론해 올바른 합의를 이끌어내야 한다"며 "특정 세력에 의해 목소리 내는 걸 가로막지 않고 가감 없이 얘기할 수 있는 개혁신당에서 다시 시작하겠다"고 밝혔다. /김해나 기자 khn@kwangju.co.kr

민주 "광주역~송정역 구간 철도 지하화"

이재명 대표, 총선 공약 발표...광주시, 연내 연구 용역 추진

더불어민주당은 1일 광주역~송정역 구간 등 철도·광역급행철도(GTX)·도시철도의 도심 구간을 지하화하는 총선 공약을 발표했다.

이재명 대표는 이날 서울 신도림역을 찾아 "과거에는 철도 근처가 발달했는데 요즘엔 쇠락하는 경향이 있다"며 "지상 시설들이 오히려 국민, 주민들에게 소음, 분진 같은 피해를 줄 뿐만 아니라 특히 도심화되면서 도시를 양쪽으로 절단하는 심각한 문제가 되고 있다"고 말했다.

이 대표는 "엄청난 비용 때문에 감히 엄두를 내지 못했고 정치적 선전 구호 또는 먼 미래에나 가능한 지킴이 어려운 약속이었던 측면이 있다"면서

"이제 체계적으로 경비 문제도 해결되고 정책적으로도 가능한 상황이 됐기 때문에 전면적으로 철도, 역사 지하화를 추진할 때가 됐다"고 말했다.

그는 국민의힘이 전남 철도 지하화 공약을 발표한 것에 대해 "정부 여당은 약속할 것이 아니라 실천하면 된다"며 "선거에 이기면 하겠다고 하지 말고 지금 하라. 곧바로 협조하겠다"고 지적했다.

민주당은 철도 지하화 후 상부 개발을 통해 환승이 연계된 주거복합 플랫폼, 지역 내 랜드마크를 조성하겠다는 구상으로, 사업 촉진을 위해 예비타당성조사(예타) 지침을 개선하고 철도부지를 국가 출자해 건폐율·용적률 특례를 주는 방안을

제시했다. 이를 위해 22대 국회에서 도시철도법 개정을 추진할 방침이다.

국토교통부는 종합계획을 수립하고 지방자치단체는 노선별 기본계획을 맡으며 민간사업자 등은 통합개발비용을 분담하는 식의 공동 개발 방안이다.

이재호 정책위의장은 기자들에게 지하화 계획과 관련해 "총연장은 약 260.2km 정도로 추정되고 그중에 한 80% 정도 지하화가 필요하다고 생각한다"며 "사업비는 일단 km당 약 4000억원 정도로 추산하고 있어 전체적으로 계산해보면 80조원 내외의 사업비 소요될 것"이라고 말했다.

한편 광주시는 광주역과 광주송정역 사이 14km 구간의 철도를 지하화하는 사업도 동력을 얻을 것으로 보고, 올해 20억 원을 투입해 연구 용역을 추진한다. 광주 철도 지하화 사업은 달빛철도 경유가 예상되는 광주역 개발과 연계해 추진되고 있다.

/오광록 기자 kroh@kwangju.co.kr

민주 공관위, 오늘 광주·전남 후보자 면접

전략 선거구 '광주 서구' 제외

더불어민주당 공천관리위원회가 제22대 총선 후보자 공천을 위한 면접에 들어간 가운데 광주·전남지역 면접은 2일 진행된다.

1일 민주당에 따르면 2일 오전 10시 광주 북구 갑 선거구를 시작으로 광주 7개 선거구는 오전에 마무리되고, 전남지역 10개 선거구 면접은 오후에 진행될 예정이다. 광주·전남지역 18개 선거구 중 유일하게 전략 선거구로 지정된 광주 서구에만 제외됐다.

면접은 같은 지역구에 공천을 신청한 후보자들이 동시에 심사받는 다대다(多對多) 방식으로 이뤄진다.

공천 신청 후보자들이 많은 선거구는 2팀으로 나눠 진행될 예정이다. 후보가 적은 곳은 7분, 후

보가 많은 곳은 26분 정도 소요될 것으로 보인다.

10여분 사이의 짧은 시간이지만 말 한마디에 승부가 갈릴 수 있다는 점을 의식한 듯, 후보들은 면접 준비에 총력을 기울이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면접 배정이 10점에 불과하지만, 경선에서 간발의 점수 차로 당락이 결정될 수 있기 때문이다.

우선 후보들은 면접 시간이 짧은 만큼 개인별 30초 가량의 자기 소개에 초점을 맞추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다. 광주·전남지역 후보들은 또 면접이 지난 31일부터 진행됨에 따라 면접이 끝난 선거구 후보들에게 질문이 어떻게 진행됐는지 여부를 묻는 등 사전에 질문 정보를 캐기도 하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공관위는 면접을 마치고 다음 달 6일부터 종합심사에 들어가 순차적으로 공천 대상자를 발표할 예정이다. /최원일 기자 cki@kwangju.co.kr

함께하는 100년 동행



아름다운 동행 서광주농협

농업인·고객·지역사회와 함께 농업의 새로운 가치를 창조하고, 더불어 사는 밝은 미래를 만들고자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NH 국민은행

언제 어디서나 간편하게 쿨!

초회, 송금, 결제, 대출 그리고 금융서비스까지!

전국 3,000여 개 하나로마트에서 쿨! 바로 바로 확인까지 쿨!

올바른 POINT UP 카드

국내·외 전 가맹점에서 무제한 포인트 적립!

전 가맹점 최대%적립 + 생활밀착형 가맹점 추가 적립

전자금융 수수료 면제, 국제공항 라운지 무료이용

NEW 리치하우스 가정종합보험 2201 (무배당)

누구에게나 일어날 수 있는 화재 피할 수 없어도 대비해야 합니다

임시(거주비·숙박비+사비) 하루 10만원(임시상90일한도) 한도 실손보장(해당특약가입시) 월5만원으로 만기시 80%환급 (매월변동가능, 공익이율 2023년 1월 기준)

서광주농협에서 더 편한 환전·해외송금을 말하다

환전부터 해외송금까지 수수료 우대 적용

본점 | 광주광역시 서구 죽봉대로 107(광천동) TEL. 062)362-8400~6 FAX. 062)362-8407

| | | | |
|---------------------|---------------------|----------------------|------------------------|
| 용산지점 062)526-0222~3 | 유동지점 062)512-1984~5 | 유덕지점 062)373-3235~6 | 운암벽산지점 062)529-5335~6 |
| 치평지점 062)381-8212~3 | 동문지점 062)513-8521~3 | 동문지점 062)528-2640~2 | 빛고을로지점 062)531-1213~5 |
| 쌍촌지점 062)381-6551~2 | 운암지점 062)527-3295~6 | 배틀지점 062)381-1971~2 | 양동센트럴지점 062)361-4472~4 |
| 외정지점 062)372-0421~3 | 운천지점 062)371-2772~3 | 상무동지점 062)372-3741~2 | 기아자동차지점 062)385-4977~8 |

지역대표 금융기관 서광주농협